

2000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뉴밀레니엄의 첫 번째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10월 13일과 14일에 걸쳐 대전의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총회 전날부터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였으나 이틀동안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를 나타내었으며 많은 회원들과 관련인사들이 참석하여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등록인원은 1,300여명을 나타내었다. 발표논문은 구두발표 85편, 포스터발표 494편으로 총 579편을 기록하였고 고분자 과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해가 갈수록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더해지는 첨단학문의 영역임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등록의 시작과 함께 조의환 교수의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기념 특별강연과 이도의 박사의 특별강연이 뒤를 이었으며 그후에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회무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인준 등의 학회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이 있었으며 충남대학교의 윤형원 총장께서 본 학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축사를 해 주시어 총회를 빛내주시기도 하였다.

본 학회의 연구논문 발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회개최의 어려움 중 하나가 적절한 포스터 발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논문 발표회에서도 포스터 발표장과 구두논문 발표장이 떨어져 있어 혼동과 번거로움의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모든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큰 어려움이 없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총 8개의 발표장으로 나누어 진행된 구두발표는 2개의 강당과 5개의 중형강의실이 동원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발표장이 만원을 이루어 많은 회원들이 서서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8회장의 정보·전자고분자, 7회장의 의료용고분자/생체조직공학 분야는 각각 250석과 2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초만원의 이루어졌으며 고분자나노기술 발표장도 100석 강의실에 여분의 좌석을 추가로 배치해야 할만큼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본 학회의 성황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회원의 수와 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 같아 모두가 기뻐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이번 추계 발표회에서는 3시에 끝나는 포스터 발표장에서 4시부터 록가수인 김경호의 콘서트가 열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오후부대의 극성으로 학회의 포스터 발표가 어수선했을 것을 걱정하였으나 가수 김경호에게는 안된 일이고 본 학회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인 입장권의 예매 부진으로 학회행사가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준 충남대학교 고분자공학과와 교수님들과 많은 굳은 일들을 기꺼이 맡아서 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학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은 본 학회의 행사를 준비하고 도우면서 본 학회의 규모와 열정에 무한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보다 많은 동계 연구를 통해 더욱더 발전한 고분자학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봄의 춘계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개최될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한다.

〈조직이사 김정수〉

